

# 보도자료

## 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등록일 : 2023-01-26

조회수 : 227

담당자 : 채지현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사업과

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선정 추진(1.27~2.15)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선정·운영을 위해 1월 27일(금)부터 2월 15일(수),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한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각 지자체가 복지부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 '23년 1월 기준 356개 서비스 제공 중

○ 2023년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하여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사업단은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과 함께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분야의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우선,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여 초·중·고 교육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신규 서비스인 초·중·고 돌봄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 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대부분의 지역사회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이용대상을 제한

→ (개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확대된 이용자를 중심으로 본인부담 차등 강화

○ 보건복지부는 초·중·고 돌봄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 청년 사업단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23년 청년사업단 공모는 1월 27일(금)부터 2월 15일(수),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다음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6)

이전글 보건복지부 장관, 강동경희대병원 현장방문(1.20.)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